

북한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과 '우리 식' 고전문학

전 영 선*

차 례

- | | |
|------------------------------------|--------------------------------|
| I. 문제제기 | 1. 북한 문화정책의 목표로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 |
| II. 북한 문화의 정체성과 변화요인 | 2. 북한의 고전문학 평가와 수용 원칙 |
| III.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민족 문화 유산 수용 | VI. 결론 |

I. 문제제기

연구는 남북한 문학사 통합을 위한 논의의 하나로서 북한의 고전문학에 대한 인식과 접근태도를 분석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과 '우리 식' 고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 이후 북한 문학, 통일 문학에 대한 진지하고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어 적지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¹⁾ 그러나 북한 문학이나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문학사를 위한 연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1) 북한 문학 연구의 성과로는 권영민 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이형기·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학I』, 고려원, 1990;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II)』, 고려원, 1990; 이명재 편,

구는 문학 그 자체에 대한 접근과 함께 북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정치사회적 배경과 정책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문화예술은 인민들에게 당의 정책을 알리고 사회주의 계급의식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나서도록 선전선동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창의력을 작품 창작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북한 문화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북 문화의 차이를 틀림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치사상 중심의 나라이다. 북한에서 사상은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학예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작품의 미적 형식보다는 사상을 중심에 두고 사상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냐에 평가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 문학도 ‘선 사상 후 형식’의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통해 균형적 감각을 갖고 선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북한 연구가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듯이 북한 문학 연구 역시 당연하게도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체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북한 문화의 특성 자체를 비판거리로 삼기도 하였다. 북한 문학 연구가 초기 이념적 갈등 차원이나 비판적 차원의 접근을 지나 북한 문학 특유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 동안의 연구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문학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 문학을 사회주의 문학과 연계성 속에서 북한 체제의 내적 특성에 맞춘 북한 문학의 특징을 찾으려는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이명재,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 국학자료원, 1998;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샘, 1999; 박태상, 『북한문학의 동향』, 깊은샘, 2002;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등이 있으며, 북한 문학 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홍창수, 『남한문학사 서술양상과 북한문학 연구동향』, 최동호 편 『남북한현대문학사』, 1995, 나남출판; 박태상, 『북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샘, 1999; 박상천, 『북한문학 연구의 경과』, 『민족학연구』4집, 한국민족학회, 2000. 2; 김성수,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논문집』3집, 한국예술종합학교, 2000. 12 등이 있다.

것이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이다. 북한 문학이 갖는 문학외적 요인보다는 문학 작품 자체의 미적 특성을 찾으려는 경우이다. 셋째, 문학사의 시각에서 연속된 관점, 예컨대 근대의식의 확장이라는 논의와 같이 남북문학사의 실제적 통합을 위한 접근의 경우이다. 남북한에 공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논의는 남북문학사의 통합논의에서 남북한의 별도의 문학사, 작품 중심의 문학사, 사상이나 정신사 중심의 문학사로 전개될 여지를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전개될 때, 실질적인 측면에서 남북문학사 서술의 이론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문학연구나 접근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북한 문학 연구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원작(원자료)에 대한 충실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북한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북한 정치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북한 문학 연구에서 문학이라는 경계나 선을 긋고 접근한다면 그 자체로서 한계를 갖는다. 북한 문학예술이 선전선동의 수단이라는 것은 비판의 종착점이 아니라 북한 문학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 문학이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²⁾ 북한 문학연구나 통일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1990년대 이후 특히 김일성 주석(이하 직책 생략) 사망 이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도 북한 체제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북한체제의 정신구조로서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대내외적 요소의 변화와 문학예술의 변화상을 고찰한 다음 북한의 ‘우리식 고전’에 대한 인식과 접근 태도를 살피고자 한다.

문화적 정체성 문제 분석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치의 변화가 어느 한 분야에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 것은 남북 문학

2) 북한에서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특성, 사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서 민족의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는 사람들을 힘있고 문명한 존재로 키워주는 사회적기능이며 사람들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도록 키워주는 중요한 수단이다”(현종호, 『조선문화사(고대중세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0, 4쪽).

의 차이가 정치적 이질화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서 반만년 민족문화유산을 공유한 고전문학과는 별개라는 인식을 바로 잡고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 문학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한은 고전문학의 유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접근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 남측에서 고전문학은 1900년대 이전의 문학으로 규정하며, 현대문학의 소재로 재창작되고 변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과 변용은 글쓰기 방식이나 해석의 차이, 적극적인 소재 활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창작이 불가능한 장르적 생명이 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고전의 범주를 해방전까지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우리 식’화된 고전문학을 정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고전문학이란 고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고전문학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의미나 가치의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인민의 시각에 맞는 현재화된 의미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고전은 과거의 작품이며 현재의 작품인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전에 대한 원형보존과 의미 분석을 주로 하는 남측과 달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 무게를 두는 접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고전소설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변용 작업은 남쪽에서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고전문학의 민족적 원형질과 보편성을 확인하지만 그 자체가 고전소설 원작 또는 원형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북한에서 고전문학은 개인의 창작이 아닌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반영된다. 즉 고전작품에 대한 당의 평가와 해석이 내려지고 개작이 되면 이에 따라서 영화, 민속가극, 출판으로 옮겨지고 개작된 새로운 전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전을 소재로 한 개작이나 변화로 취급하여 통일문학이나 남북문학의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창작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 자체로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문학의 범주를 넘어선 국학 분야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음악과 비교한다면 전통악기라고 할 때, 전통적인 가야금이나 해금이 아닌 7음계 연주가 가능한 개량된 악기로 존재한다. 남측과 같이 국악관현악이란 존재는 없이 현대화된 악기로 운영되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있을 뿐이다. 악기와 관현악 배합에서 그 자체가 개량된 민족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양악기가 종속적으로 작용한다.

문학에서도 고전이 그대로 존재하고 별도로 현대화된 작품이 존재하는 이중

적 개념, 국문학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구분되는 문학의 영역이 아닌 민족문학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또한 고전의 범주가 남측과 달리 근대까지 이어져 있다. 항일무장혁명투쟁시기를 고전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것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든 것은 북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I. 북한 문화의 정체성과 변화요인

북한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정치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 문학예술이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곧 문학예술의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문화의식은 文·史·哲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때, 북한의 그 중심에 수령이 있다. 文은 문학예술로서 사회의식의 예술적 구현이며, 史는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문제이고, 철학은 가치판단의 준거이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가운데 수령이 존재한다. 수령이 모든 인식의 중심에 서는 것은 수령이 단순한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앞날을 이끌어주는 탁월한 사상을 창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³⁾

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됩니다. 백수십년의 공산주의운동력사는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력사이며 그것이 구현되어 세계를 변혁시켜온 력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19세기중엽에 맑스와 엥겔스는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투쟁무대에 등장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고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을 추동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내놓음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아성을 짓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였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

북한의 문학예술은 수령의 정치적 아름다움과 인간적 풍모를 표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혁명문예이다. 북한의 역사가 곧 수령의 역사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건설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사회주의 조선의 출발이었으며, 사회주의 조선을 건국한 시조이다.⁴⁾ 북한의 역사는 사회주의 조선의 건국과정을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것이 혁명역사이다. 인간으로서 삶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령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 수령을 위하여 존재하고 수령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가치이며, 삶의 표본이다. 선전선동으로서 문학예술은 역사와 철학에서 말하는 바를 인민에게 올바르게 알려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북한 문학연구에 있어 정치사상의 변화와 배경을 알아야 하는 다른 이유는 북한 문학이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화가 정치사회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주요한 변혁기마다 문화체제의 성격도 변화되어 왔으며,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정치사회화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문화체제에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⁵⁾

북한 문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대외적인 요소, 대내적인 요소로 구분된다. 대외적인 요소로는 국제관계, 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관계와 남북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담당층의 변화와 사회구성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관계가 변화되면 작품으로 반영된다.

첫째, 대외적인 요인으로서 대외관계의 변화이다. 긍정적인 방향이면 화해적인 작품을 부정적 방향이면 반국가적 작품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미관계의 악화에 따라 반미감정을 표현할

를 개척하시었습니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채택’ :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 5) 이우영·임순희·전형선,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의 다양화 실상 및 전개방향』, 통일연구원, 2003. 9, 1쪽.

수 있는 작품이 부각되었다. 특히 2001년 공동사설을 통해 가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 강조되었던 것도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가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이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북한 문학예술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3대 혁명가극⁶⁾ 가운데 유일하게 6·25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1971년 조선인민군협주단에 의해 창작, 공연되었다. 이른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제국주의와의 판가리 싸움’으로 불리는 6·25를 소재로 하였기에 북한 인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인민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선군시대에 맞게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대표작품 상징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직책 생략)이 직접 작사·작곡한 작품이라는 점, 갖은 고난과 시련을 뚫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수령을 믿고 따른다는 내용이 현재 상황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당의 참된 딸>은 ‘총대가극’이라고 불린다.

문학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정치적 어려웠던 1990년대 이후 발표된 작품 가운데서 동지와 함께 한다는 ‘동지에 문학작품’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동지에 작품이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동지애를 ‘유일무이한 형상원천’으로 ‘작품의 종자와 문제제기, 인간관계 설정과 이야기 줄거리 조직 등 형상과정의 모든 요소를 조건짓고 발전시켜 나가는 근본담보이며,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으로 강조하였다.⁷⁾ 이러한 동지에 주제의 성과작으로는 성과작으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 등의 시와 장편소설 <열망> 등이 꼽히고 있다.

둘째, 대외적인 요인으로서 남북관계의 변화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남한을 소재로 한 작품이 과거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에서 통일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주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통일돈돌라리>, <통일경축의 아리랑> 등의 통일

6) 3대 혁명가극은 북한의 혁명가극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이외에도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를 포함하여 5대 혁명가극이라고도 한다.

7) <동지에 문학작품>, 『조선문학』, 2001년 7월 참고.

을 강조한 가요가 2000년 이후 등장한 것이 구체적 사례들이다.

셋째, 대내적인 요인으로서 지도부의 변화이다. 앞서 언급한 수령관에서 김일성의 사망은 수령관의 개념 변화를 동반한다. 수령이라는 개념이 김일성 생존시에는 수령=김일성이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기에 수령의 존재나 개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은 김일성 중심의 수령관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수령이라는 존재를 대체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는 김정일의 주도로 체계화되었고, 김정일은 자신이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 김일성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령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는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는 유효하게 작용하였지만 더 이상 후계자의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들면서 민족문화의 범주에 김일성의 혁명적 문화예술을 편입시킴으로써 민족 정통성에 가계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김일성의 사망 이후 3년상을 치루기까지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세워 나갔다. 수령의 상징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높임으로써 그 후계자인 자신의 권위를 보장받았다. 후계자에 대한 도전은 곧 김일성에 대한 도전으로 등가화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의 정치적 직위였던 ‘주석’직을 누구도 넘볼 수 없게 영구 폐지시켰고, 주체연호와 태양절 제정, 김일성 영생탑 건립, 국제김일성상 제정 등의 사업을 통해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김일성 = 민족’이라는 등식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1997년 7월 28일에는 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언어학 학술발표회’에서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김일성 민족의 민족어’로 규정하고, 언어예절 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는 등 ‘김일성 민족(태양민족)’이라는 우월적 선민사상을 고취시키면서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강화시켰다.

김일성을 새로운 국가 ‘사회주의 조선’의 건국시조로 높이면서 김정일은 건국이념을 받아들여 민족을 부흥시킨 인물, ‘민족 중흥’(부흥), ‘통일’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민족’을 매개로 절대적 권위의 유지와 차별화를 꾀하여 나갔다. 김일성 사망 이후 등장한 ‘태양민족’이라는 개념도 유사성이 발견

된다. 김일성 생존시에 ‘태양’은 절대성과 유일성이 핵심으로서, ‘태양상’의 반영이 예술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 태양의 개념이 김정일 시대에 이르면서 절대 권위 속에 김정일과 김일성을 병칭하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선군’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 역시 김정일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의 문학을 ‘선군혁명문학’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이전의 ‘혁명문학’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이란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김만영의 서사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소설 <백금산> 등이 대표작품이다. 이들 작품에 대해 ‘선군혁명문학’으로 명명하여 ‘혁명문학’과 구분한 것은 항일무장혁명투쟁에 중심을 둔 김일성의 ‘혁명문학’과는 차별되는 김정일 시대의 특징,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문학을 의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2002년에 공연되었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 전환점에서 민족사의 고난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하여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일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작품들이다. 넷째, 대내적인 요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변화이다.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 혁명세대의 퇴조와 함께 전후세대의 등장, 특히 1990년대 경제난 시대를 지나면서 청년층으로 성장한 ‘새세대’의 출현은 기존의 가치관과는 차별되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만성적 경제난과 사회통제구조의 이완 속에서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되면서 집단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하며, 대의명분보다는 실리적인 경향이 강한 특성을 보여준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된 새 세대들에게는 혁명의 당위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의 문화로는 접근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하나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중문화⁸⁾의

8) 대중문화를 논의할 때의 ‘대중성’과 북한 문학예술의 창작원리로서 ‘인민성’은 기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상업예술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취향이라는 의미에서는 ‘인민성’과 일정부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인민성이란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를 완성하

내용을 다양화 하고 생활문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2002년에 방송된 맞벌이 부부의 갈등과 남성의 권위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남녀평등을 강조한 <엄마를 깨우지 마라>, 북한에서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2001년 10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방영한 <가정>, 옥류관 총각요리사 무한기와 처녀 병상무용수(아이스댄서)인 류순애의 사랑을 소재로 2001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옥류풍경> 등의 드라마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경희극', 생활가요 등이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자오락에 대한 장려, 바둑이나 낚시 등의 장려, 요리사협회, 우표애호가동맹, 프로권투협회, 요술협회 등의 결성이나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취미생활을 장려를 통하여 생활문화를 다양화 하고 있다.

한편으로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확립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다. 청년을 비롯한 북한 인민들의 도덕성 고취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로 표현되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같은 매체를 통하여 '공산주의적 기풍'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1970년대 불려지거나 공연되었던 '수령옹위' 주제 작품을 다시 방영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무장을 강조하고 있다.⁹⁾

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인민대중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민들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민의 입장에서 인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민의 해방과 행복한 미래의 건설에 복무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하여 문학예술 작품은 인민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이 알 수 있는 형식과 내용에 인민이 소망하는 바를 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민성은 예술의 본질로서 당성 및 노동계급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쉽게 이해되고 감동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통속예술론이나 군중예술론을 정립하는 근거가 된다. 보천보전악단의 음반에서 '대중가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적립된 용어는 아니다.

- 9) 이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방안』(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12), 임순희,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통일연구원, 2000), 이우영·임순희·전연성,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의 다양화 실상 및 전개방향』(통일연구원, 2003. 9) 참고.

Ⅲ.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민족문화 유산 수용

1. 북한 문화정책의 목표로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

북한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은 ‘혁명적 문학예술의 전통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에 있다. 혁명예술을 옹호하는 것은 혁명예술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생활의 참된 보람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예술’이기 때문이다.¹⁰⁾ 인민대중에게 생활의 보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정서에 맞아야 하는데, 인민대중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문화가 바로 민족문화라는 것이다. 다만 민족문화는 정서적으로는 잘 맞지만 내용이 인민대중이 주인인 주체시대와는 맞지 않기에 민족적 형식을 빌어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다. 문화건설과 혁명의 모든 과정이 민족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기에 민족문화 건설은 북한 문화정책의 최대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고전문학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 정권수립기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고전의 개념과 가치평가 역시 정치적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정적인 고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여 강조되고 있는 ‘조선민족제일주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문화를 체제의 수호논리로 확대시켜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다. 즉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동구의 민주화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우호 세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는 북한 경제의 급격한 몰락과 함께 회복 불능의 상황에 이르렀다.¹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조선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은 백전백승의 혁명의 지도자인 수령을 모시고 있으므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민의식을 강조하였다. 문화적으로는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대외적 문화개방에 대한

10) 전영선, 『북한의 예술관과 남북문화 이질감 극복방안』, 『서울평양학회보』 7집2호, 서울평양학회, 2002. 12, 4쪽.

11) 전영선, 『북한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문예정책』, 『통일논총』 17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9 참조.

대응논리를 만들어 나갔다. 문화의 세계주의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저들의 지배와 통제밑에 얽어매려”¹²⁾는 책동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민족우월주의를 외부 사상의 유입이나 외부와 타협하려는 수정주의를 배격하고 선민의식을 통한 체제수호 논리로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식’화된 민족문학 전통은 기본적으로 혁명성과 민족성을 기본 축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었고, 고전문학에 대한 해석도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북한에서 고전은 주체의 시대 혁명과 교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체문에 이론에 따라 개작된 형태로 존재한다. 문학예술은 역사발전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인민적이며 혁명 문화 건설에 필요한’ 것이야 하는데, 착취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착취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예술은 인민의 창조적 노동과 지혜, 기술에 의해 창조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창조된 것은 아니었다. 착취사회가 철두철미하게 반인민적인 사회인만큼 이를 반영한 문화유산도 반인민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고전문학이 의미 있는 것도 당대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보여줌으로써 인민들의 계급적 각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고, 인민의 교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고전문학은 당에서 정한 몇 가지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현시대 인민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개작된, 현대화된 고전문학, 개량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의 것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의미, 현대화된 의미로 존재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때문이다. 북한의 관점에 따르면 문화는 어느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계급성을 지니게 된다. 착취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예술이 인민의 창조적 노동과 지혜, 기술에 의해 창조되기는 하였지만 전적으로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 착취사

12)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자』,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1999. 6. 1

회가 철두철미하게 반인민적인 사회였던만큼 이를 반영한 문화유산도 반인민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¹³⁾ 따라서 과거의 문화유산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오늘날 인민의 교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극복한 개작된 형태로 존재해야만 한다.

‘민족적 정서와 형식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라는 문화정책은 북한 정권수립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절대 원칙이다. 김정일은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을 민족적 바탕에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을 문예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¹⁴⁾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으며, 헌법을 통해 국가정책이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¹⁵⁾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정의 핵심은 민족적 정통성과 혁명적 정통성의 일체화이다. 북한의 고전문학자들은 혁명역사의 민족사적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고전의 개념과 범주를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투쟁시기까지로 규정한다. 북한의 견해에 따르면 『주체문학론』에서 고전문학의 범위를 일제식민지 통치시기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학계에서는 20세기 초엽의 문학을 근대문학을 취급하고 그 외의 고전문학유산을 도외시하였으며, 일제식민통치 시기에는 현대문학 작품만 창작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고전문학의 하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주체문학론』에서 바로 잡게 됨으로써, 다시 말해 “고전문학유산에 근대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고전문학창작기법으로

13) 전영선,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기본과 사적 흐름』, 『한국문화연구』 6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149쪽.

1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 3. 31.

15) 1998년 9월 5일 개정된 헌법 제41조.

쓰여진 문학유산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어 풍부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을 열”¹⁶⁾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전문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전문학 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고전문학을 창작기법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고전의 시기를 근대 이후로까지 적용한 것이다. 고전문학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1920,30년대 항일무장혁명 투쟁시기에 창작된 작품들도 고전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조선고전문학개요』에 ‘항일혁명편’이 별도의 장으로 설정되었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고전문학에 대해 “김일성 동지를 형상한 백두산의 태양전설과 공산주의의 태양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형상한 백두광명전설을 비롯한 혁명설화와 인민송가, 혁명적인 군중놀이와 인민가요들로 풍부화된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고전문학”으로 정리하면서 전통 민요와 설화의 범주에 혁명설화, 혁명적 가요의 용어를 통하여 항일무장혁명 투쟁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⁷⁾

고전의 개념과 시대 구분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침에 의한 것이다. 고전문학이 현대문학(공산주의적 문학) 건설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 문제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해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인민들은 과거 계급사회에서 어렵게 살아왔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왔고, 이러한 인민들의 사상적 입장과 낭만적인 지향으로 문학예술에서 어둡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밝고 경쾌한 색조와 선율,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형식을 창조하였고, 이것이 부단히 발전되어 우수한 민족적 형식을 이루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옹기종기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 민족적 특성은 아름답고 유순한 민요조의 노래, 우아하고 점잖고 기백 있는 춤가락, 섬세하고 힘 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화의 필법 등을 특징으로 꼽는다. 소설문학에서는 흐리멍텅하지 않는 인간관계와 사건조직이 명백한 고전소설의 구성수법이며, 소설의 주인공이 아름답고 고상한 성품을 체현시킨 인물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하는 것들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상한 인품의 인물로 설정되었으며, 사건의 전개 역시

16) 리창유, 『우리 식 문학건설에서 고전문학이 노는 중요역할』, 『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5, 3쪽.

17) 이에 대해서는 『조선고전문학개요』(사회과학출판사, 1994. 6) 참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발단 - 전개 - 위기 - 결말에 이르는 순차적인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낭만적 미래관을 갖고 있기에 주인공의 생활을 비극적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결말에 이르러 성공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이다.

우리 식 문학에서는 주인공들의 생활이 비극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작품에서 긍정적인인들의 이상적인 생활을 찬미하였으며 그들의 운명선을 비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행보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는 형상방법을 썼다. (...) 우리 인민의 이 낭만적지향은 선을 긍정하고 인간의 선량한 량심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미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¹⁸⁾

이러한 ‘우리 식’ 소설의 특징은 엮기적인 사건, 복잡한 갈등관계, 삼각연애, 비극적 인간관계와 결말의 구조, 비순차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소설과는 다른 민족적 특성으로 평가한다.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된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그려 나가는 것이 민족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세계문학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개 민족마다에는 오랜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있다. 생활을 현실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문학예술에는 민족적특성이 반영되기마련이다. 매개 나라 문학예술은 민족적특성이 반영됨으로써 그에 고유한 민족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창조발전되면서 세계문학예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다. 문학예술에서 민족적특성을 반영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전반에서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서, 생활내용을 반영하는 문제, 문학예술의 민족적성격을 뚜렷이 살려나가는 문제이다.¹⁹⁾

북한에서 감정, 정서적 측면의 민족적 특성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이 강하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용맹스럽다는 것이다. 고전소설 가운데 <임진록>, <박씨부인전>, <림경업전>, <달천몽류록> 등의 작품들이 “반침략적 애국투쟁을

18) 리창유, 『우리 식 문화건설에서 고전문학이 노는 중요한 역할』, 『조선고전문학 연구』 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5-16쪽.

19) 안희열,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19쪽.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 간고한 투쟁 속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된 인민들의 미학적요구를 반영하면서 발전하였던 만큼 애국심은 이들 작품들의 주제사상적내용을 관통하는 기본지향을 이루고 있다”²⁰⁾고 평가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문학예술계의 새로운 주제로 떠오른 ‘향토애가 곧 조국애’ 역시 민족적 정서를 반영하면서 주체시대에 맞는 주제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크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며 자기희생적인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가장 훌륭한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예술 작품이 유순하고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고전소설을 비롯한 “소설문학이 창조한 주인공의 성격은 전통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성품을 그대로 체현시킨 것”²¹⁾으로 평가한다.

셋째, 우리 인민은 노동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예술형식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예로는 유순하고 밝고 명랑한 민요에 표현된 조선식장단과 리듬, 아름답고 율동적인 춤가락, 연하고 선명한 색깔을 좋아하는 미감, 작품의 양상에서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것을 좋아하는 민족적 관습을 꼽고 있다.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 북한의 민족예술이 되고 있다. 음악에서는 민요의 리듬을 반영한 민요와 ‘우리식 전자음악’, 미술의 조선화, 조선보석화, 조선수예, 민속무용, 민족교예 등이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민족예술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 체제우월의 논리에서 북한체제 계승의 정당논리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2년 공연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연 인원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으로서 ‘신민요군 가운데서도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암울한 생활감정이 반영’된 민요 <아리랑>을 ‘상(모델)’으로 한 것이다. 이외 가요 <강성부흥 아리랑>, <통일경축의 아리랑>, <통일 돈돌라리>, 대형조선화 <아리랑> 등의 작품을 통해 민족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의 건국’, 김정일은 ‘사회주의 조선의 부

20) 김하명,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3쪽.

21) 안희열,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21쪽.

흥'으로 위상을 정립하면서 사회주의 조선의 혁명완성이라는 체제계승의 논리를 만들어 갔다.²²⁾

2. 북한의 고전문학 평가와 수용 원칙

김일성은 과거의 유산이 혁명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허무주의이므로, 그렇게 보지 말고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²³⁾

사회주의 민족문화예술은 지난날의 문학예술 가운데서 낡고 반동적인 것을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성격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토대 위에서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민족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다²⁴⁾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고전문학, 민족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은 복고주의와 허무주의를 지양하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작품'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복고주의란 '지난날의 것을 무조건 되살리고 찬미하는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며, 민족허무주의는 '우수한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복고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기준은 민족문화 건설에 이바지하였느냐는 점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복고주의와 허무주의는 민족문화유산을 대하는 일정한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화정책의 목표로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 맞는 문화유산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정치투쟁에서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논리였다. 북한에서 1952년부터 1960년대까지를 '교조주의, 허무주의, 복고주의 척결과 주체 확립이 강조되던 시기'로 평가하는 것도 '허무주의'나 '복고주의'가

22) 전영선,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정치사회적·문학예술적 의미』, 『중소연구』 26권2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참조.

23)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0년 2월 17일.

24) 김정일,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1970년 3월 4일.

유일사상체계 형성을 위한 반대파 제거의 명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문학 유산에 대한 해석과 주해 작업은 해방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서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고전의 주해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고전문학의 현대화 작업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고, 현대화의 기본 방향과 윤색작업을 거쳐 1980년대 고전문학을 비롯한 민족문화 유산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사회주의 제도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막고 인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교양 기능이 한층 강조되면서²⁵⁾ 혁명가극을 비롯한 영화 등의 예술장르로 확대되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가장 다양하게 현대화 한 작품은 <춘향전>이다. 1980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작한 예술영화 <춘향전>은 북한 최고의 영화문학 작가로 평가받는 백인준의 시나리오에 최고연출가로 평가받는 유원준이 연출한 작품으로 1980년대 고전의 현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1989년에 발표된 민족가극 <춘향전>은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양식인 혁명가극과는 차별화된 민족가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기원이 되었다.²⁶⁾

<춘향전>이 처음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춘향전>의

25) 김정일, 『주체문학론』, 『김정일선집』, 로동당출판사, 1997, 326-327쪽: “우리의 문학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 문학이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은 그 사상 교양적기능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화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 민족의 힘과 지혜에 대한 긍지와 믿음, 민족의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세우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달리말하여 우리 민족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의 지도자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있는 민족이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족이며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생동하게 밝혀내야 한다.”

26) 이에 대해서는 전영선, 『고전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남북한의 『춘향전』』, 문학마을사, 2003 참고.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춘향전》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작품은 봉건사회에서 양반과 상민사이의 신분적불평등을 비판하고 남녀청년들이 재산과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사랑할수 있고 같이 살수 있다는것을 보여준것만큼 그 당시에는 물론 진보적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양반계급의 신분적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자체가 다름아닌 양반의 아들이며 이 작품에 그려진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신세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것입니다.²⁷⁾

<춘향전>을 비롯하여 고전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의한 것이었다. 즉 역사는 발전적으로 진행된다는 역사관에 기초하여 과거의 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하여도 시대적 한계 때문에 어쩔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고전소설을 포함한 민족문화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고전문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여 오늘날 인민들의 교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느냐에 있었다. 따라서 고전문학에 대한 비판은 곧 그대로 고전문학에 대한 개작과 현대화의 방향과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

고전문학에 대한 비판은 네 가지 측면이었다. 첫째, 계급성의 문제이다. 문학예술은 계급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착취와 피착취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일부 모순을 각성한 인물들도 그들 자신이 속한 계급적 한계로 인해 피착취계급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성의 문제이다. 특히 고전소설은 유교나 불교, 도교 등 종교적 색채가 강하며, 점·꿈 해몽, 제사 등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는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상투적 구조의 문제이다. 고전소설의 서두와 결말은 가계 내력과 후일담으로 공식화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성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결말에서 당대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끝내는 것은 중세기적 사고를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문학예술 작품에서 나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는 문제로 당연하게 인식

27) 김정일,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전국 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2월 27일.

한다. 또한 ‘해피엔딩’은 현실을 중요시하면서도 미래를 귀중히 여기는 민족적 정서의 반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고전문학에서는 이것이 도식적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작품일수록 창작 당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그리고 그 시대적 조건을 문학적으로 반영하면서 중세기적 사고에 반대하는 선진적 지향을 보여줘야 하는데, 고전소설에서는 양반 세계에 대한 지향과 동경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넷째, 비조선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배경과 등장인물에서 중국을 차용하고, 한문투와 고사성어를 인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고전소설은 민족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김정일이 제시한 민족문화유산 수용 원칙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 개작 작업이 진행되었다. 고전문학에 대한 수용의 명분은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을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식별하여 시대적미감과 계급적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적문학예술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는 합법칙적요구”라는 것이었으며, ‘주체적 문학예술의 사명’이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주체위업수행에 이바지”²⁸⁾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우리식 고전문학’으로 정립하기 위한 수용과 개작 작업이 진행되었다. 북한의 고전소설 개작 작업은 앞서 지적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첫째,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교양의 강화이다. 인민들에게 교양이 되는 주제를 담은 작품, 계급성을 잘 반영하면서 봉건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춘향전>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봉건사회의 신분적 제약에 반대하는 남녀간의 사랑을 통하여 조선조 봉건사회의 부패상과 관료들의 전횡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 문제는 개작 과정을 통하여 가장 많이 강조된 부분이다. 김정일은 민족가극 <춘향전>의 창작지도에서 ‘춘향과 함께 그의 어머니인 월매의 형상적 지위를 바로 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혁명가의 전형적 어머니로 부각되었다. 월매나 방자, 향단은 시종일관 진지하며 도덕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이몽룡의 어머니나 관료들은 부패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

28) 『주체문학의 새경지-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학예술업적·4』, 문예출판사, 1999, 280쪽.

다. 뿐만 아니라 동네아낙이나 농부들도 적극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등 계급적 측면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민족가극 <심청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이 당대사회의 현실임을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심청에 대한 장승상 부인의 동정을 미화함으로써 계급적 성격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둘째, 애국사상을 담은 작품이다. 애국적 사상의식은 구체적으로 외세 침략에 대해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민족적 성격의 중요한 특징으로 규정한다. 영화 <홍길동>에서 일본과 싸우는 대목을 설정한 것이나 <임진록>과 <박씨부인전>을 애국적 진보적 문학사조를 반영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여성도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아름다운 삶을 일깨워 주는 작품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반외세의 전통은 고전문학의 현대화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에서 현대화 한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외세가 일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에서 오랑캐는 북쪽 지역의 민족인 말갈, 거란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을 직접적인 침략자로 설정한 작품이 별로 없는데 비하여, <홍길동>, <강릉처녀와 평양젊은이> 등의 작품에서 일본을 침략자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서 군담소설을 반침략적 애국 사상을 담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우리 식 작품이다. 우리 식 작품이란 우리의 말과 글로 창작된 작품, 배경이 우리 나라인 작품, 민족적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판소리계 소설이 한문소설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우리 말로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1966년 5월 김일성의 교시 이후 말다듬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정치용어를 제외한 한자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주민등록에 한자병기, 외래서 사용을 문화사대주의로 비난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작 작업에서도 한자어, 한시 대신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IV. 결론

북한의 문화정책은 당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대응양식으로서 변화되어 왔다. 북한의 고전문학은 고전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한 분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 즉 현(주체)시대 인민의 교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고전은 고전소설의 문제점을 고친 ‘우리식’으로 존재한다.

북한의 고전문학 개작은 당의 문예사상에 입각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각색하여 빈부의 차이와 신분적인 귀천이 존재하는 낡은 착취사회 신분제도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울러 인민들의 근로의식을 표현하여 노동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계급문제의 경우 계급갈등을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전반의 문제로 확대하여 하층민의 인간미를 강조하면서 빈부귀천의 신분적 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고전문학이 ‘우리 식’ 고전문학으로 존재하는 배경으로서 북한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유산 수용과 창작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의 문학예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인식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문화의 논의를 위해서는 개념과 언어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한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에 개념과 범주가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한은 체제의 차이만큼이나 언어에서 이질화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자주’라는 의미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용어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는 만큼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시대적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학이라는 순수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남북한의 문학적 동질성이나 통일문학 접근은 어렵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문학이 선전선동의 기능을 포기하고 순수한 서정시나 문학적 작품을 쓰지 않을 것이며, 설혹 그러한 경향의 작품이 몇 편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작품을 통일문학사의 모자란 부분을 메우거나 그것으로 북한 문학의 변화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문학은 문학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에서 ‘文藝’는 ‘文化藝術’이 아닌 ‘文學藝術’로 문학이 예술에 선행한다. 문학이 중심에 놓이는 것은 모든 작품은 서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원칙에 따라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예술작품을 통해 인물의 성격 발달과정, 즉 혁명가로서 의식의 발전과정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문학이 바로 이 서사를 만들어낸다. 문학을 통해 완성된 서사를 토대로 장르별 특성에 맞추어 형상화만 하면 된다. 문학이 모든 예술 작품의 토대가 되는 만큼 문학 자체의 독립성보다는 문화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폭넓게 접근해야만 한다.

넷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 문화정책의 목표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이며, 실천방법으로서 민족문화의 형식 속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념으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우리(조선)민족 제일주의’였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체제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문화정책 역시 이에 맞추어 새로운 형식으로서 민족가극이 만들어 졌으며, 민족문화유산을 현대화 한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북한문학, 우리식 고전, 주체문학, 혁명예술, 남북문화, 고전문학

참고문헌

- 노동신문 · 근로자 공동논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자』, 1999.
6. 1.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구전문학개요』, 1994. 6.
- 문예출판사, 『주체문학의 새경지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학예술업적』 4, 1999.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 문화교류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12.
- 권영민 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 김성수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논문집』3집, 한국예술종합학교, 2000. 12.
-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0. 2. 17.
- 김정일, 『주체문학론』, 『김정일선집』, 로동당출판사, 1997.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 3. 31.
-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 김하명,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리창유, 『우리 식 문화건설에서 고전문학이 노는 중요한 역할』, 『조선고전문학연구 I』,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박상천, 『북한문학 연구의 경과』, 『민족학연구』4집, 한국민족학회, 2000. 2.
- 박태상, 『북한문학의 동향』, 깊은 샘, 2002.
-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 샘, 1999.
- 설성경 · 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 신형기 · 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 안희열,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 윤재근 · 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II)』, 고려원, 1990.
-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 이명재,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국학자료원, 1998.

- 이우영·임순희·전영선,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의 다양화 실상 및 전개방향』, 통일연구원, 2003. 9.
- 이형기·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학I』, 고려원, 1990.
- 임순희,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2000.
- 전영선,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정치사회적·문학예술적 의미』, 『중소연구』26권2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 전영선,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기본과 사적 흐름』, 『한국문화연구』6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전영선, 『북한의 예술관과 남북문화 이질감 극복방안』, 『서울평양학회보』1집2호, 서울평양학회, 2002. 12.
- 전영선, 『북한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문예정책』, 『통일논총』17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9. 12.
- 전영선, 『고전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남북한의 『춘향전』』, 문학마을사, 2003.
-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 현종호, 『조선문화사(고대중세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0.

<Abstract>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Culture and 'Our Way(woorishik)' of Classical Literature

Jeon, Young-Sun

Being formulated under the KWP(Korean Workers' Party)'s initiative, the cultural policy in North Korea has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nd specific situations. The classical literature in North Korea aims not to analyse the meanings of the classics themselves, but to fi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namely to meet a purpose of educating the people at the times of Juche. According to this rule, North Korean classics have been construed in 'our way,' which revises the problems of the classical novels. The adapt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of North Korea has been based on the Party's literary ideology, having an intention to expose the contradictions and irrationality of the old exploitative hierarchy system and to emboss the values of labor by expressing the worker's consciousness. In case of the class issues, especially, it emphasizes the humanity of the lower class people and expressly discloses the contradictoriness of social stratification based on the economic wealth, by dealing with the issue of class conflicts at the level of the entire society rather than individuals. Observing the classic literature of North Korea exists in 'our way,' this study inquires into the cultural policies of North Korea and the principles of creation and acceptance of national cultural inherit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followings as important points to be attend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literature and art. First, any discussions on the culture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preceded by securing homogeneity of concept and language between the two. Second,

studies on the literature and culture of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understanding of socio-political situations in North Korea. Third, the North Korean liter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the fundamental rather than a sub-category of the North Korean culture. Fourth, studies on the classic literature of North Korea should be backed up by correct recognition of traditional culture.

Key Words: North Korean literature, 'Our way' of classical literature, Revolutionary Art, North and South Korean culture, Classical literature.